

부활 제4주일
(성소주일)

기도서 263면 (C해)

제1독서: 사도 13, 14. 43-52
제2독서: 묵시 7, 9. 14b-17
복음: 요한 10, 27-30

숲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
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
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요한 10, 27).

□ 강론



회상(回想) II

문규현 신부

79년 2월로 기억되는 일이다. 본당 성모회원들과 산청 성심 인애원을 방문했다. 여러 병동을 방문하던 중 한 병동에 이르렀을 때 안내 수사님이 경계의 말씀을 주셨다. 심한 환자의 방이란다. 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다리가 얼어붙은 듯 멈춰졌다.

열려진 방에서는 고약한 냄새, 뒤에는 나를 따르는 신자들. 순간 네가 사제냐?는 부끄러움과 함께 무언가 모를 힘에 방에 밀려 들어갔는데 이를 어찌랴..... 코는 없고 눈에는 누런 고름만 가득하여 보기가 처참하였다. 나는 금방 석고상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부끄러움과 사제로서의 작은 사명감에 짓눌려 나도 모르게 그분의 손을 잡고 "얼마나 고통이 크십니까?"하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다. 순간 "신부님 감사합니다"하며 고름 가득한 두눈에 감사의 눈물이 흐르지 않는가.....

나는 이런 처지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나고 물었다. 가졌던 재산, 가족과 일가친척까지도 버린 나를 찾아주신 것은 하느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느님의 사랑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 신부님이 날 찾아 주시겠습니까? 부끄러움 속에서 하느님을 만난 얘기입니다. 부끄러움과 사명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체면에 짓눌려, 아니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하여 행한 나의 조그마한 행동이 하느님을 만나는 복을 나에게 준 것이다. 준 것보다는 얻은 것이 큰 만남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철저히 주고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인류에게 희망을 준 분이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남김없이 준 사랑이요, 이 사랑의 결실이 부활의 영광이다.

성소주일이다. 성소란 착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이다(요한 10, 27) 곧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사제는 주님의 삶에 불려진 사람이다. 그것은 하느님과 세상에 던져진 삶-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사는 것이다. 그럴 때 그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그안에 있을 것이다. 이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삶인가! 플라톤은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이 또한 행복을 얻는다"고 했다. 젊은이들이여! 주님은 그대들을 이 복된 삶(사제직)에 부르신다. "예" 하는 응답만이 그대들과 세상을 복되게 할 것이다.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오직 당신을 위해.

(교육국장)



왜 미움받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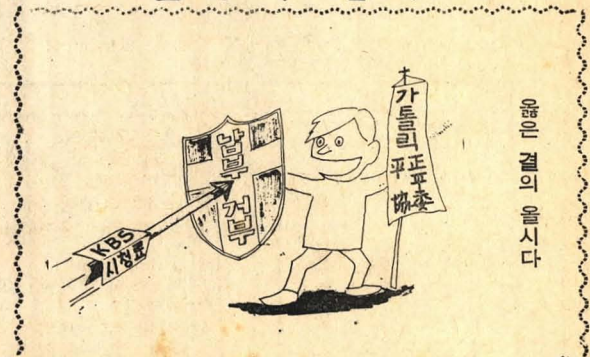
어느 본당의 구역모임에서 대화가 「텔레비전 시청료 거부」 문제에 이르르자 한 교우가 이러한 질문을 했다. "왜 천주교 신자들은 미움을 받는가요?" 의외의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은 천주교회가 항상 옳은 말만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답이 오고 간 뒤, 대화는 더욱 활발하게 텔레비전 시청료 거부쪽으로 흘렀다. 문득 지난 주일 첫째 독서-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다가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기뻐하는 사도들(사도행전 5장27-42절)-가 생각난다.

우리가 텔레비전 시청료 거부운동을 벌이는 첫째 이유는 KBS의 편파 보도 내지는 왜곡 보도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는 시청료를 받으면서도 광고방송을 하는 점이며, 셋째로는 그 징수방법에서 볼 수 있는 횡포에 대한 불만이 쌓여서 터지게 된 저항운동이다.

전대통령의 유력순방 정상외교에 대한 기사가 연일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방문국가들과의 우호증진은 물론, 우리의 안보상황을 알려 더 큰 협조를 구하고, 교역 확대 등을 통한 경제협력을 얻는 기회가 되고 있다 한다. 좋은 일이다.

그런데 「미국의 소리」 방송에 의하면 영국이나 서독 등지의 정치 지도자들은 한국에서의 민주화 추진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며 이를 촉구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서독에서) "야당에게 합당하게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촉구"하고... "민주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는 모두 환영"하며... "인권옹호가 서독과 한국 우호관계에 커다란 역할"을 하며... "경제관계 개선은 한국 민주화 추진 속도에 달려 있다"고. -왜 이런 내용들은 우리 언론에서는 보도하지 않는가? 견해차이인가? 「텔레비전 시청료 거부운동」이 일고 있는 지금인지를, 다시 언론문제를 생각해 본다.

숲정이 산책



신앙의 감격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리

“밝히오리다”

교구설립 50주년 기념 표어처럼 밝히려는 의지가 하나로 모였던 기쁜 날이었다.

지난 14일 여산 숲정이 성지축성과 순례의 길, 그리고 천호 피정의 집 기공식에는 2,000여 교구 신자들이 한데 모여 신앙의 감격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뜨거운 자리였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한 형제자매로 일치와 공동체를 새롭게 다짐하며 서로서로 손을 잡고 주의 기도를 노래하며 순교자의 피가 베인 숲정이 바로 그 땅위에서 정성스런 제사를 올렸던 것이다.

오래전부터 여산 성지개발을 위해 정성을 모아준 서울 화양동 신자들, 특히 성지개발에 직접 도움을 줬던 공로자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정이 표현되었다.

순례의 길을 떠나기 위해 주교님 축복을 받는 신자들의 모습은 모두가 경건했다. 짧지않은 순례의 길(여산→천호공소 9km)은 울리는 목우알 따라 기도소리가 합해졌고 순례의 행렬은 참으로 불만한 장관이었다.

지금부터 120여년전 여산에서 치명한 순교자들의 시신을 옮기던, 그것도 캄캄한 밤에 죽음을 무릅쓰고 문드림이 재를 넘어 천호산 기슭에 매장했던 바로 그 길이었고 역시 고산지방에서 잡혔던 신자들이 포졸들에게 끌려갔던 바로 그 고갯길을 우리는 걸었던 것이다.

우리들의 분당 신부님 수녀님은 물론 절친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엄마 손잡고 갱충거리는 꼬마까지 우리는 함께 걸었다. 불구의 몸으로 다리를 절룩이며 땀을 뚫던

신자도 기억난다. 좀더 경건한 분위기가 아쉬웠지만 모두가 진지한 모습으로 순교자들의 피땀의 길을 감격스런 마음으로 함께 걸었다. 당시의 박해중에 끌려갔던 그 모습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고 가파른 고갯길도 그렇게 습차지만은 안했던 것이다.

그날의 행사 제3부는 피정의 집 기공식이었다. 여산 성지 축성식에 참여했던 신자 거의 모두가 다시 모인 천호성지, 역시 가슴 뿌듯한 자리였다.

먼저 간 신앙의 선조들의 고귀한 뜻을 이어받아 깊은 신앙생활의 재다짐과 함께 우리 모두 모여 기도할 주님의 성전과 우리들의 신심수련을 위한 피정의 집을 우리들의 손으로 짓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다짐한 것이다. 기공을 위한 한 삽이 떠질 때 우리 모두가 이 사업에 동참할 뜻을 가지며 뜨거운 박수를 질러 쳤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천호공소 신자들이 준비한 떡과 막걸리를 나누는 모습은 참으로 잔치스런 분위기였다. 천호공소 신자들에게 감사한다.

자, 이제 행동으로 옮길 뿐이다.

8만여 교구 신자들의 뜻이 한데 모여지면 무슨 일을 못하겠는가! 작은 정성이라도 한데 모아 우리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 고귀한 사업을 반드시 성취하자.

우리 후손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피정할 때 나도 그 사업에 동참했노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보람을 준비하자.

□성서교실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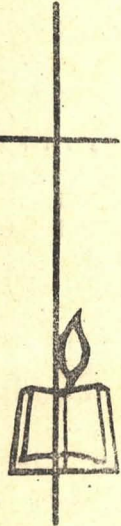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 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요한 10:27)

때는 겨울이었고, 예수는 성전 구내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있었다. 이 때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얼마나 더 오래 우리의 마음을 조이게 할 작정입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해 주시오」(10:24).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인물과 그의 행적에 대해서 어리둥절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예수는 그들을 보고 자기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이들이 예수의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10:26).

예수는 이들에게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알아듣게 했지만,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서 예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10:26). 이들이 이렇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들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결국은 믿지 않았던 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히브 3:9).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이야기이다. 유대인들의 이런 질문 때문에 예수는 양의 특권과 자기와의 관계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10:27). 여기서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말은 양들이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만나는 것을 말한다.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것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안다」는 말은 선택하고, 사랑하고, 구원하는 약속에서 예수가 자기 양들을 안다는 것을 말한다.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는 말은 생명을 향한 「자기 포기」가 들어있는 말이다.



* 혼수(회갑)웃감 | 도매상
 * 특수 파티복 |
 * 고급 침구류 |
 * 각종 솜 일체 |
 * 커벤지

서울주단

☎ ③0453 ⑤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미  성

소주 코아백화점 1층
미성핸드백 대리점

*취급품목
 핸드백·여행용가방·007
 가방·지갑

☎ 교환 72-0551-5
 72-0561-5
 김혜경(클라라)

황수경 산부인과 의원

자궁암 검사, 질 성형수술

여의사 황수경
 산부인과전문의

이승렬(엘리아)
 ☎ 전주 2-7272
 판통로 서울신탁은행건너편 골목

교 구 소 식

1. 춘계 사제총회 : 22일 (화) 오전 10시, 장소-가톨릭센터
 2. 사무장·사무원 피정 : 23일 (수) 오전 10시, 장소-가톨릭센터
 3. 수녀연합회 제48차 월례회 : 21일 (월)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강사-박정일 주교·김진소 신부·박민철 선생
 4. 중·고지도자 2차 연수회 : 26일 2시~27일, 가톨릭센터 회의실
 5. 성소주일 행사 : 20일 (오늘)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해성고등학교 강당, 일정-백일장·영화·강의·오락·미사
준비물-미사도구·점심, 대상-남녀중·고·대학생 및 일반
 6. 사제 어머니모임 : 21일 오후 2시, 장소-신수당(강덕행 신부님 어머니택)
 7. 문학강연 및 시 낭송회 : 연사-시인 구상 선생 (종교와 문학)
특별 초대작가·시인-정비석, 김광균 선생
때-1986. 4. 26(토) 오후 5시, 장소-노송동 천주교회
※ 문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8. 신동천주교회 사무실 전화번호 : 54-1827
상관천주교회 전화번호 변경 : 82-5079 (27일부터)
- ※ 축! 영명 : 성안셀모 (21일) 김운섭 신부님 축하합니다

제3지구 사목위원 연수회 : 대상-제3지구 전체 본당 사목위원 (분과위원장급)
일시-20일 오후 2시~6시, 장소-군산 둔율동천주교회 강당
주제-86년도 사목지침 (가정·본당·교구공동체)
강사-김동준·문규현·김진소·김철환 신부

※ 가정기도 독서 : 갈리디아 5 : 22~26 북음 : 요한 13 : 34~35

❁ **잡 관!**

성소주일, 행사

오늘은 성소주일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다하고 있는가 반성하고 특히 사제성소, 수도성소를 위해 성소자를 개발하고 육성해야 하는 교회의 중요한 의무를 새롭게 생각하는 날이다.

오늘 교구 교육구역에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 해성학교 강당에서 행사가 열리고 있고, 특히 동정성모회 이리 본원에서는 오늘 수녀원을 개방(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하고 수도성소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마련, 방문을 기다리고 있단다. 또한 주현동 본당에서는 지난 6일 본당 단위 성소주일 행사를 개최, 중고생과 부모들 350여명이 모여 응변대회 등 여러가지 행사로 하루를 뜻깊게 보냈다고.....

성서 60권, 군인들에게 전달

군인들을 위해 꾸준히 도움을 주고 있는 교구 군중후원회에서는(지도신부 권이복, 회 양규철), 금번 전주 35사단을 방문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신약성서 60권을 전달했다는 호뭇한 소식.

후원회에서는 그동안 군중신부님들의 활동을 돕고 교구 월간지 「주님의 날」을 교구 군중신부님 소속 부대에 계속 보내고 있다.

군인들-그들 모두는 사실 우리 자녀들이고 형이나 오빠이며 동생들이다. 특히 군인신자들의 신앙생활은 우리 모두 관심 가져야 할 일. 군중후원회의 호뭇한 일에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

요십이 (663) 김병오

우리한신대교수들이 시국선언문발표했다! 우리고대교수도 했다!

우리성대교수도 했다! 우리서울대교수도 했다!

너의대학교수들은 앉았지?

우리대학교수들은 뭐야? 창피해서죽겠네!

☆ **발 족**

약 우 회(가칭)

가톨릭 전주교구 약업계 종사 형제(제약회사, 도매업소 근무 영세교인)들의 화합과 조그마한 정성들을 모아 봉사코저 하는 취지로 모임을 갖고저 하오니 뜻이 있는 형제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가칭) 전북 가톨릭 약우회 발기인 일동

연락처 :

- 남강계약(6-0184) 송월주
- 유한양행(6-3931~2) 김동진
- 제일약품(75-8001~2) 최봉규

금성가스보일러 전 북 총 판
(저속 수입 완제품)
웅커스·가스보일러·온수기·각종 설비공사
전주 흥국생명빌딩 옆
☎ 4-0532
홍성규(스페파노)
강경옥(아네스)

명파의 전당 남원 풍미당제과
각종빵, 음료수, 선물용 케익, 아이스크림, 밀크셰이크, 팔빙수
(남원 전북은행 옆, 구 중전제과)
전화 남원 2-2037
손홍섭(카시아노)
이선자(레레사)

장숙영 피아노교실
☎ 3-1207
군산 영동 금회당 앞
장숙영(발바라)

☆개업☆
종합화장품 할인코너
봄뜨락
군산시·금암동
(한국프라스틱 정문앞)
☎ 2-9872
박정애(울리아)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 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용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기 곤
아파트 75-6389 사목회장 노 인 석

1. 금주는 성소주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생활과 사제양성을 위해 함께 협조합니다
 2. 주일헌금 배가운동: 교구성정 50주년 사업을 위해 주일헌금 배가운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3. 문화강연 및 낭송회: 26일 오후 5시 본당에서 연사-시인 구상선생님의 강연, 김광윤선생의 시 낭송,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4. 본당 웅변대회: 주제-성소에 관하여
원고접수 마감-27일까지 (사무실에 접수)
참가대상-초등부에서 일반인까지
 5. 초등부 성소주일행사: 오늘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참가대상-국교생 3학년~6학년까지, 성체수녀원
 6.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7. 교무금 납부의날: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8. 공소 순회미사: 26일 저녁 8시, 왕정리공소
 9. 본당 사무실 직원들 피켓: 23일 가톨릭센터에서
 10. 본당-아파트간 친선체육대회 (중·고등부)에 협조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1. 금주전례: 해설-임영빈, 독서 및 봉헌-문명식 부부
신랑-김진희 부부, 신부-김영희 부부
차주전례: 해설-박상규, 독서 및 봉헌-김용기 부부
신랑-이창환 부부, 신부-최영복 · 김영례 부부
- 지난주 봉헌금: 518,181원 교무금: 342,000원
지난주 신축금: 81,0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2-5238 사목회장 김 성 원
수녀원 "

1. 병자봉성체: 24일 병자가정에서는 사무실에 미리 알려주세요
 2. 유아세례: 26일 저녁미사 후 유아가정에서는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3. 반회장 회의: 26일 오전 11시
 4. 사목회 월례회: 27일 저녁미사 후
 5. 사목회 연수회: 27일 오후 2시~6시, 교구청
 6. 성지순례: 25일 오전 7시 정자 출발 (시간 엄수)
장소-충북 연풍성지 (본당 미사출입)
 7. 성소주일 특별헌금: 오늘
 8. 사순절 저금통: 지난주 누계-105개 618,255원
금주헌금-69개 345,377원 누계-963,632원 174개입
 9. 축! 결혼: 20일 12시, 복자성당
신랑-차완봉 (안드레아), 신부-김연순 (젤마)
축! 결혼: 27일 12시, 중앙성당
신랑-전해웅 (벨라도), 신부-조재실 (헬레나)
 10. 금주 성당청소: 월-다위의 탐pr, 토-갯벌pr
차주 성당청소: 월-사도의 모후pr, 토-자비의 모후pr
 11. 금주전례: 해설-최희숙, 독서-①이봉수 ②이상인
봉헌-김동관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김재식, 독서-①이갑진 ②김인식
봉헌-이병현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73,610원 교무금: 617,950원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상 설
사무실 사목회장 이 정 후

1. 오늘은 성소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2. 꾸르실로 울뜨레아: 22일 저녁미사 후
3. 본당 우정의날: 30일 저녁미사 후
※ 청년과의 대화의 시간
4. 특별헌금: 본당 전화통기 헌금 있습니다
27일 공식미사
5. 본당 전화개통: 27일, 82-5079
6. 순정이 은인을 구합니다: 사무실 접수바랍니다
7. 청년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생일파티 있습니다)
8. 예비자교리: 공식미사 후 사제관에서

9. 축! 혼배: 27일 12시, 본당에서
신랑-여정진 (스베파노), 신부-강영숙 (비비안나)
 10. 금주전례: 해설-김은수, 독서-①문병주 ②김병주
봉헌-박봉도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118,780원 교무금: 165,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강 덕 향
사무실 " 사목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1. 제2성당 주일미사: 오전 9시 · 오후 2시
 2. 제2성당 주일학교: 어린이교리가 일요일 오후 1시에 있으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3. 꾸리아 모임: 27일 오후 2시
 4. 유아세례식: 24일 오후 2시, 사무실에 신청바람
 5. 성모회: 오늘 공식미사 후
 6. 주일학교 소풍: 27일, 구이저수지
9시까지 성당으로 집결
 7. 토끼 · 돼지저금통 봉헌
 8. 사도의모후 빼레시디움: 금요일 오후 2시로 변경하였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9. 오늘 봉헌: 한형수 부부 차주 봉헌: 김낙균 부부
제2성당 봉헌: 오수환 부부
 10. 차주전례
아침미사: 해설-최창림, 독서-①차상렬 ②문치구
공식미사: 해설-남정호 · 고정수
독서-①강기호 ②김한기
저녁미사: 해설-유명환, 독서-①강경화 ②진경진
- 지난주 봉헌금: 제2성당-94,730원 본당-317,930원
계-412,660원 교무금: 126,000원
미수금: 61,00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최 상 범
수녀원 2-8347 사목회장 김 병 오

1. 성화회: 공식미사 후
 2. 꼬미시움: 오늘 오후 2시
 3. 성마리아 꾸리아: 다음주 오후 2시
 4. 첫영성체 교리: 매일 4시~5시
※ 3학년 이상
 5. 예비자교리반 안내: 금요일 (일반) - 오후 8시
토요일 (중·고생) - 오후 5시
일요일 (일반) - 공식미사 후
 6. 성가정회 회원께 감사: 교도소 방문시 50여명분의 빵과 야쿠르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7. 성심상주변 나무심기에 협조해 주신 분께 감사
한규화 · 유숙자 · 유영문 · 김화금
 8. 짧은미사: 매주 수 오후 7시30분
 9. 다음주 봉헌담당: 이덕봉 부부
 10. 울뜨레아: 다음주 공식미사 후
 11. 오늘 성소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12. 아치예스: 5월2연기
- 지난주 봉헌금: 942,990원 교무금: 397,000원

(호자동)

사제관 75-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목회장 이 정 선
수녀원 2-4804

1. 84년 8월 영세자 기념품: 미사종-23만원
 2. 주부 성서대학: 23일 오전 10시-사도행전 ②
 3.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25일 밤 11시부터
 4. 울뜨레아: 오늘 저녁 8시
 5. 성모회: 오늘 공식미사 후
 6. 예비신자 교리: 일요일-공식미사 후
화요일-저녁 8시
학생-일요일 오후 5시30분
 7. 유아세례: 27일 10시
- 지난주 봉헌금: 512,840원 교무금: 292,000원